

최고의 기술자와 고급인력의 만남

고객감동 영업전략으로 신뢰 쌓아가



손 명 수

토탈팩키징서비스(주) 대표이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습득하는 지름길이다.

어느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노력이 있어야 성취된다.

탁월한 성과를 이룬 정신적, 육체적 스킬은 고도로 전문화된 다른 분야로 쉽게 전이되지 않는다. 특히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고 최상의 능력을 키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생생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회사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포장기계업체에서 20여년동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오며 최고의 기술자로 성장한 전문가가 새로운 도전으로 2001년 설립한 토탈팩키징서비스(주)(대표이사 손



▲ TPS의 제품 제작 현장



▲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TPS 본사 전경

명수)는 그라비아인쇄기 및 코팅기 전문제작업체이다.

경영자이자 포장기계 제작 전문가이기도 한 손명수 사장은 1981년 성안기계공업(주)에 입사하면서 토탈팩키징서비스(주)(이하 TPS)를 창업하기까지 그 분야에서 최고 위치까지 올라온 명실상부한 기술자다.

“포장기계 제작업체인 성안 기계의 현장에 막내로 입사하여, 20여년 동안 수많은 기종을 제작해 보고, 해외 및 국내 시장의 A/S를 통해서 기술적

인 경험을 몸소 체험하며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자로 자부한 저의 도전과 목표 및 꿈을 위해 신선하고 차별화된 기계를 제작하고자 TPS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명수 사장의 당당한 목표와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회사 설립 5년만에 매년 30% 이상 매출이 신장되는 놀라운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TPS의 큰 자랑거리이자 경쟁력은 기술자와 기술자의 만남으로 회사가 설립됐다는 점

이다.

TPS는 현재 어떠한 기계라도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고급인력과 현장 경험 및 대처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TPS는 현재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Coating Machine, Extrusion Laminator Machine, Dry Laminator Machine, Rewinding Machine, 기타 산업용 포장기계 일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19여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면 고객은 우리를 기억

TPS

한다”라는 모토아래 회사 발전을 위해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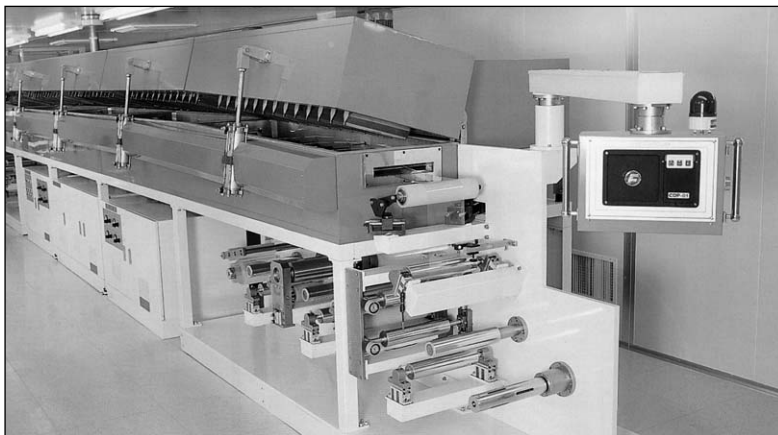
처음 신생기업으로서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고객에게 증명하는 영업활동이 쉽지 않았

던 것은 당연지사.

손 사장은 “막 창업한 회사를 믿고 선풍 기계를 발주 할 바이어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TPS는 고객감동을 위한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세워 조금씩 동종 업계에서 인정 받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철저한 A/S와 정확한 진단,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TPS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실제로 TPS 직원들은 업무상의 일 외에 정기적으로 거래처를 순회하며 작업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 오고 있다.



▲ TPS가 생산제작하는 Micro Coater



▲ TPS가 생산제작하는 Dry Laminator Machine



▲ TPS가 생산제작하는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이에 고객들은 한번 TPS와의 거래를 맺으면 그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매년 고속성장하고 있는 TPS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품질과 기술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지난 해 말 베트남 수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기 위해 해외 영업팀을 구성, 활발히 활동 중에 있으며 일본,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의 각종 전시회를 통해서 TPS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신기종의 개발 및 품질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고객에게 영원히 사랑 받는 기업이 되고자 매진하고 있다.

“창업을 결정하고 시작했을 때, 믿고 동참해 준 창업 멤버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TPS가 있었다”는 손명수 사장.

최고의 경영자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로서, 발명가로서, 창의적 개인으로서, 위험감수자로서의 자질을 지녀야 함은 물론, 냉철한 판단력과 소신을 갖고 개념적 기술 (conceptual skill)과 전략적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를 통해 기업이운을 창출하려는 도전정신과 목표에 대한 확실성이 뚜렷해야 한다.

위의 조건과 더불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띤 최고의 기술자라면 경영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 아닌가 싶다.

최상의 조건을 갖춘 손명수 사장 아래 TPS의 직원들은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약속하며 회사 발전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땀 흘리고 있다. ☐

이한열 기자